

한-태평양 무역·관광 진흥 프로그램 운영 계획(안)

2018.4.18.(수) 서남아태평양과

1 경과

- 산업연구원(KIET)은 태평양도서국 대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(KSP)을 수행, 동 사업의 결과로 한국 소재 태평양도서국 사무소 설립을 제안(2016.6월)
 - ※ 「태평양도서국 무역·투자·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자문」(산업연구원, 2016)
-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(PIF)은 ‘태평양도서국 무역·투자기구(Pacific Islands Trade & Investment, PTI) 한국 사무소’설립을 요청(2016.9월)
 - ※ 우리측은 한국 사무소 설립에 대한 추가 연구 용역 수행
 - 「주요국의 대태평양 도서국 외교정책과 우리의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」(국제개발협력학회, 2017)

태평양도서국 무역·투자 기구(PTI)

- 1979년 태평양도서국포럼(PIF) 사무국 산하에 설립된 태평양도서국의 무역·투자·관광 진흥 기관
 - 4개의 해외 사무소 및 1개의 연락사무소(제네바 소재)를 운영중

국가명	개소년도	법적지위	연 예산	직원(PIF측 직원)
호주	1980년	국제기구	약 190만불	9명(-)
뉴질랜드	1994년	국제기구	약 65만불	7명(-)
일본	1996년	법인격 미설정	약 47만불	5명(-)
중국	2002년	국제기구	약 65만불	7명(2명)

- 태평양도서국 무역·투자기구(PTI) 사무소 주요 활동
 - (일본) PNG산 LNG의 50%를 일본으로 수입
 - (호주) 바누아투 탄나 커피 시장에 656천 호주달러 투자 유치
 - (중국) 중국인 관광객 팔라우(4.9만명), 피지(14.3만명) 등 방문(2015년도 기준)

2 건의

- PTI 한국 사무소 설립은 기존 정부원조 중심의 對태평양도서국 외교정책을 보완하고, 시장성 있는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 제고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유용성 평가
 - 다만, 수천 Km 떨어진 PTI 본부와 사무소간 관리·평가 체계 불비 등을 감안, PTI가 2017년 진행한 「PTI 사무소 관리 개선 방안」 용역 결과 및 동 후속조치 동향을 보아가며 추진 필요
- 이를 감안, ‘한-태평양 무역·관광 진흥 프로그램’을 발족, 운영함으로써 향후 한-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(2020)를 목표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경험 축적
 - ※ PTI 사무소간 연례회의(3월) 참석 및 박람회·세미나 개최 등

한-태평양 무역·관광 진흥 프로그램 운영(안)
(Korea-the Pacific Trade&Tourism Promotion Program)

- 운영기간 : 2018 - 2020년 (2개년)
- 예산 : 한-PIF 협력기금 총 150만불 (연 50만불 활용)
- 담당기관
 - 수입협회 및 남태평양관광기구 한국사무소에 각각 분야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'한-태평양도서국 무역/관광 인큐베이터(가칭)' 설치
(무역·투자 인큐베이터)
 - 무역·투자 박람회, 무역·투자 세미나, 무역사절단 파견, 무역 관계자 방한 등 (관광 인큐베이터)
 - 관광 박람회, 관광 세미나, 관광홍보홈페이지 운영, 언론인 방문 취재 등
 - ※ 우리나라 국민 방문 현황: 22,297명(2016년)
 - 현재 직항로는 팔라우 주 6회, 피지 주 3회 개설
 - 전문가 그룹 : 외교부, KOIRA, KOICA 및 PIF 관계자로 구성되며, 각종 자문 제공
 - ※ 한-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계기 대면회의 개최
- 사업 심사 및 평가
 - 외교부를 거쳐 PIF에 사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
 - ※ 한-PIF 협력기금 운용 절차(사업 시행 6개월 단위로 PIF에 보고 등) 준용
 - ※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

3 추진 계획(안)

- 담당기관과의 사업계획 협의 (3~4월)
- PIF측과 협의 및 기여약정 체결 (5~6월)
- 우리측 사업시행기관과 PIF측 간의 협의 및 이행약정 체결 (6~7월)
- 한-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계기 발족행사 개최 (9~10월)
- 2018-19년도 보고서 제출 및 중간 평가 (2019.7월)
- 2019-20년도 보고서 제출 및 상설화 검토 (2020.7월)

/끝/